홍대선원의 네 행자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요즘 홍대선원에는 네 명의 행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두 명은 한국인이고 두 명은 독일인이다. 세 명은 20대이고, 그중 한 명은 아직 열아홉 살이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환경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지금은 한 도량에서 아침저녁으로 예불하고 공양하며 출가의 길을 준비하는 '법의 형제'가 됐다.

내년 봄 수계를 준비하는 원경 행자는 독일에서 왔다. 십대의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무상사 국제선원에서 행원 생활을 경험하고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지금은 서강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함께 수계를 준비하는 원각 행자는 아버지와 형의 출가를 지켜보며 자랐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음의 성품을 바라보는 명상 수행을 이어왔고, 마침내 자신도 출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두 행자의 신심 어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선원의 스님들과 청년 스태프들의 마음에도 저절로 환희심이 일어난다.

올가을 수계를 앞둔 두 행자 역시 독일인과 한국인이다. 막스 행자는 나의 은사 현각 스님의 제자로, 나에게는 첫 사제가 생기는 셈이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안거 수행을 한 끝에 출가의 뜻을 세웠다. 한국인 행자는 고려대학교에 다니다 홍대선원에서 스태프로 활동하며 출가를 결심했다. 두 사람은 수덕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히말라야선원에서

신심 어린 행자들 모습에 환희심 일어
출가는 자신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
대자유인 향한 행자 4명을 수희찬탄해

석 달 동안 공양주 소임과 도량석, 위의를 익히며 수행자의 삶을 몸으로 배웠다.

지난주 히말라야 수행을 마친 두 행자가 돌아오면서 네 명의 행자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한복판의 번화한 거리에서 출격장부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불교의 미래를 새삼 떠올리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홍대선원과 인연을 맺어 출가한 이는 모두 열한 명이다. 그중 여덟 명은 나와 사제의 인연을 맺었고, 누구는 다른 도량으로 향했다. 어느 곳으로 출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기 위해 익숙한 삶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출가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마음의 하이웨이다."

출가는 가족을 버리거나 세상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온 세상을 집으로 삼는 일이다. 만나는 모든 인연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과 행복을 함께 나누겠다는 서원이다.

어찌 보면 출가는 인생을 건 한판의 도박과도 같다. 세상의 도박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있고, 얻고 잃는 것이 있다. 구도의 길에서는 마침내 잃을 것이 본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니 수행자는 향상일로(向上一路)다. 이기고 지는 데 걸리지 않고,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는 대자유인을 향해 걸어갈 뿐이다.

출가라는 새로운 길에 자신의 삶을 건 네 명의 행자에게 무한한 수희찬탄을 보낸다. 때로는 외롭고, 자신이 세운 뜻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먼저 길을 걸은 사형으로서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함께 걸으며 물심양면으로 힘이 될 수 있기를 발원한다.

소설 한 편이 던진 화두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모든 생명체가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 문장을 외던 미국 여인 얼리사. 그녀는 멸종위기 생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의회에 나가서 세상이 진지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이런 얼리사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움직였다. 지구상의 숱한 생물 가운데 인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중에서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피붙이의 안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다. 마음으로만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빌지 않았고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냈던 그녀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자기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추운 겨울밤, 멸종위기 동물인 야생 주머니쥐가 도로에 나타났고, 치지 않으려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공교롭게도 자동차는 커다란 나무에 부딪쳤고 그녀와 그녀의 몸속에 있던 여자아이는 즉사한 것이다.

미국 작가 리처드 파워스의 소설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원제, Bewilderment)〉의 줄거리다. 소설은 엄마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로빈을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내레이션으로 이뤄져 있는데 로빈 역시 엄마의 기도대로

멸종위기 생물 위해 행동한 소설 주인공
생명 위해 실천 못한 나 돌아보는 계기
행동 없이 기도뿐인 현실이 내 화두 돼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끝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지만 어쩌랴. 소년은 저 기도문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단 하나, 앞에서 말한 "모든 생명체가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이라는 〈숫타니파타〉 속 '자애의 경'의 한 구절이다. 이 문장은 불교사상을 관통하는 생명관이요, 우주관이다. 소설을 읽는 내내 불자인 나로서는 흥미롭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외며 잘 알고 있었던 이 문장을 삶에서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설은 바로 그 지점을 독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환경을 생각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의 수입이 더 중요하고, 멸종위기 동물이 안타깝지만 일단 사람부터 살고 보자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겠는가. 이것이 준엄하고 냉혹한 현실이라 우리는 마음으로나마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만 빌었던 일은 지구와 모든 생명들의 안위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냈을까.

기도와 현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기도를 해서 괴롭고 힘든 현실이 흔들리고 움직여서 바람대로 되어야 기도는 완성되는 것이다. 불자인 나는 마음으로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랐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란 걸 굳게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렇다면 불자인 나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진정 바라기는 하는 걸까.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소설이 내게 던진 화두다.

社 說

생명 살리는 복날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보양식'이 화제의 중심이 된다. 복날이면 삼계탕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뜨거운 고깃국 한 그릇 먹어야 제대로 복달임했다는 인식도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오늘날 복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복달임 문화 역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복날은 본래 혹독한 더위를 견디기 위해 지친 몸을 쉬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던 생활의 지혜에서 비롯됐다. 육체노동이 일상이었고 단백질 섭취는 턱없이 부족했던 농경사회에서 복달임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문화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영양 과잉과 비만, 각종 만성질환을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복날은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영양 과잉 시대, 달라지는 복달임 문화
불교계 '복날 채식' 사회적 확산 기대

반갑게도 최근 전통적인 육식 보양 대신 채식 복달임을 선택하는 이들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삼계탕 대신 두부전골이나 버섯전골, 채소 육개장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철 채소와 샐러드를 먹는 '복날 비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 나의 건강은 물론 지구 환경과 동물복지까지 두루 고려하는 새로운 가치 소비문화가 복달임 풍경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사찰음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불교계가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복날 채식 캠페인'도 한몫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불교기후행동은 2021년부터 매년 '복날 채식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한 끼 채식'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도 초복인 7월 15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캠페인을 열고 생명 존중과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눴다. 중복과 말복에도 채식 캠페인과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연간 도축되는 닭은 10억 마리에 이르며, 그 가운데 30%가량이 복날 전후에 소비된다고 한다. 육류 생산은 막대한 양의 물과 곡물을 소비하고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한 사람이 선택하는 한 끼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선택이 모이면 육류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며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줄이는 힘이 된다. 개인의 작은 선택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다.

불교의 '불살생(不殺生)' 가르침은 살생을 금지하는 소극적 계율을 넘어, 모든 생명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연기(緣起)의 법칙 속에서 공존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비의 표현이다. 인류의 무분별한 탐욕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라는 재앙으로 돌아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식탁을 차리는 일은 그 자체로 수행이자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이다.

복날 채식은 보양의 의미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자는 제안이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채식으로 몸과 마음을 맑히는 복달임은 건강에도 이롭고 지구에도 이로운 선택이다. 복날 채식 문화가 불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깊고 넓게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2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2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2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